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 '더 촘촘하게'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발대식 개최... 45명 분야별 위원 위촉

전주시에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돌봄·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발대식 및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복지·돌봄, 보건·의료, 장애·정신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45명을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분야별 위원으로 위촉했다.

3기 민관협의체는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종료시점인 오는 2025년 12월 까지 운영된다. 3기 민관협의체는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종료시점인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되며, 당연직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날 호선된 권근

상 위원(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목표와 방향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정책 제언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전주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시범사업 주요 계획에 대한 논의 △지역 내 관련 서비스 추가 발굴·제공 논의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등급자

△등급외 A·B △노인 맞춤형 돌봄 중점대상자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방문형 의료지원 △퇴원환자 연계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낙상예방 가정환경 조성 △식사지원 △트래져 가사 및 돌봄 △이동지원 등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국가 돌봄 사업을 우선 연계한 후 추가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9년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

봄 민·관협의체'를 결성하고 2년 주기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2기 운영기간 만료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고도화 비전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시작과 함께 제3기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권근상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주시가 초고령 사회의 돌봄 대안인 통합돌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출범한 제3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의 분야별 다직종 협력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해 '전주시 노인 의료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향후 모든 시민들의 돌봄 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무주우체국 '고객 전용 주차장' 헛말?

직원들 전용물 되면서 민원인 불만 커져

'우체국 고객 전용주차장'이 헛말이다. 이는 헛말은 헛말이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소통'은 헛구호인가?

무주우체국이 '고객 전용 주차장'이라는 안내팻말이 무색하게 직원들의 전용물이 되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경 무주우체국은 찾은 주민 김모(60, 무주읍)씨는 만차가 된 주차장을 보고 황당했다.

그는 "우체국업무 개시전 이었음에도 주차장 총 13개 주차면이 3대의 우체국 택배차량을 포함해 10여대의 차량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이것도 모자라 주차선 밖 자투리 공간마저 또 다른 차량이 세워져 있어 설명 빈공간이 있다 한들 주차가 버거울 정도로 혼잡해 보였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차장 밖 천변길마저 중앙선 양쪽으로 두세대씩 총 예닐곱 대 차량들이 인도까지 주차돼 있어 도로교통 흐름도 방해할 정도였다"고 분을 삼켰다.

실제로 지난 25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본 기자가 지켜본 주차장엔 관용 택배차량 3대를 사이에 두



고 각 개개인의 지정된 주차장인 듯 빈자리에 차량을 파킹하고 우체국 본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버젓이 '우체국 고객 전용주차장입니다'라는 안내팻말이 한 곳도 아닌 전면과 후면 두곳에나 부착돼 있음에도 업무개시 전에 '만차'라니 이게 다 고객들 차량일리는 만무하고, 직원들의 차량일 것이라는 의심을 낳기에는 충분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26일에도 똑같은 모습이 재현됐다.

한편, 무주우체국 한원수 우체국장은 "직원회의를 통해 13개 주차면 중 50%에 해당하는 7면 정도는 고객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했다"면서 "민원인을 배려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 다. /무주=전문선 기자

"철저한 대응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 지켜야"

우범기 전주시장, 동초등학교·백석저수지 등 호우피해 현장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가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작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폭염과 태풍 등 여름철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철저한 대응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8일, 최근 집중호우로 토사 및 제방유실 등 피해가 발생한 △전주동초등학교 △백석저수지 △진마동 신미산마을 일원 등 수해 복구 현장 3곳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수해복구 공사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우 시장은 이날 방문한 전주동초등학교와 백석저수지 일대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및 제방유실이 발생한 곳이다. 또, 신미산마을의 경우 호우로 인해 만경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현재 전주동초등학교와 백석저수지의 경우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시는 향후 전복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던 신미산마을에 대해서는 만경강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로 해마다 집중호우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북부권역 침수 예방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호우피해가 발생한 백석저수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상청이 발표한 공식 장마기간은 종료됐지만, 여전히 폭염과 태풍, 국지성 호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에 철저히 대응하고, 사전에 수시 점검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들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주시설공단, 특별재난지역 익산서 수해 복구 '구슬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 직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 28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 15명은 전날 익산시 용안면 일대에서 폭우로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토사로 매몰된 배수로를 정비했다. 또 농가에서 폐가전을 비롯한 폐자재를 수거하고,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한 농민은 "폭우로 농작물이 다 때 내려갔다"며 "복구가 난망했는데 도움이 돼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공단 직원들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날 봉사 활동에 임했다. 박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공단 노조 간부들도 힘을 보탰다.

구대식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시름에 잠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하루 빨리 복구가 마무리되고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서 한복 체험관 운영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고유의상인 한복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한복 문화를 알리는 흥

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교육, 체험, 전시 등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모이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에 맞춰 한

복의 글로벌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복문화창작소 홍보관'은 잼버리 행사장 내 위치한 전시관 중 하나로, 한국관광공사와 세종학당과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이곳에서는 잼버리 참가자와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통 특수한복 전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한복 입기 교육 △전통 놀이 체험 △한복 관련 소품 만들기 등 체험 △한복 국악 오픈 스튜디오 등 한복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또, 한복 일러스트로 유명한 우나영(필명 '흑요석')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 및 포토존도 운영된다. /김육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